

데 스틸(De Stijl) 사조의 건축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De Stijl Style

김흥섭* / Kim, Heung-Seob

Abstract

The original members of the De Stijl group, formed in neutral Holland during the First World War, included the painters Piet Mondrian, Bart van Leck and Theo van Doesburg, and the architects J.J.P. Oud and Jan Wils. The aim of the group was to create a language of form and color applicable to every sphere of modern life. The means of expression selected by the De Stijl artists was rigorously restricted, using only vertical and horizontal lines with the right-angle created where they cross, and for color, black, white and the primaries- red, yellow and blue. Of these simple elements consisted the compositions painted by Mondrian and van Doesburg during the years around the end of the First World War, and the famous red-blue chair made by Gerrit Rietvelt in 1917. They did share a common influence, Cubism, and they both emphasized contemporaneity. Otherwise they were quite different movements, both in theory and practice, except for one further point of similarity.

키워드 : 건축형태, 직각의 원리, 신조형주의, 대각구성, 미니멀리즘

Keywords : Architectural Form, Princiful of the Light Angle, Neoplasticism, The Opposite Composition, Minimalism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1914년에 유럽에서 발생한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동시에 발생했던 미래파, 구성주의, 데 스틸(De Stijl) 등의 예술운동은 과거의 양식과는 구분되는 새로운 양식의 탄생을 목표로 하여 수용과 배척이라는 시간적 과정을 거치면서 활발히 전개되었다. 이러한 운동들 중에서 가장 순수한 이념을 표방했으며, 포괄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었던 예술운동은 1917년부터 1931년까지 피에트 몬드리안(Piet Mondrian)과 데오 반 도스버그(Theo van Doesburg), 요한네스 오우드(J.J.P. Oud), 게리트 토마스 리트벨트(G.T. Rietveld)를 중심으로 네덜란드에서 형성된 데 스틸(De Stijl)이다.

데 스틸은 수평 및 수직선의 교차로 인한 직각과 흑, 백, 회색을 추가한 원색의 사용을 통해서 보편적인 조화의 존재를 실현하려 하였다. 새로운 시대상황에 입각해서 형태보다는 기능에 우위를 두었던 대부분의 근대건축 운동과는 달리, 미학적인 측면에서 형태를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근대건축의 형태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으며, 데 스틸로부터

제공된 형태적인 개념과 공간적 구성으로서의 건축개념, 시간성을 내포하는 건축개념은 이와 함께 행위하는 인간의 공간 인식에 중요성을 갖게 하였다. 예술과 생활을 접근시키고자 한 그들의 이상은 이루지 못했으나, 그 영향은 이후 건축가들에게 크게 미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데 스틸 건축의 형태구성 방법 분류를 통해 나타나는 건축의 특성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데 스틸의 건축특성을 분석하려는 것으로 연구의 범위는 아래와 같고, 연구의 방법은 관련문헌의 분석과 작품의 사례분석이 중심이 된다.

1) 데 스틸이 성립되었던 시기의 시대적 상황과 이론적인 배경들, 데 스틸이 추구했던 건축적인 이념들을 살펴봄으로서 데 스틸의 건축에 대한 개념을 정립한다.

2) 데 스틸 건축의 구성요소들을 구분하여 이들의 건축구성 방식을 고찰하며,

3) 이를 통해 형성되는 건축적 형태구성 특성을 파악하며, 또한 실내건축에 나타나는 데 스틸의 디자인 특징을 살펴본다.

4) 위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서 결론을 도출한다.

* 정회원, 세명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 조교수, 건축공학박사

2. 데 스틸(De Stijl) 건축의 개념적 고찰

2.1. 데 스틸의 성립 및 이론적 배경

(1) 데 스틸의 성립

20세기초 예술, 건축, 디자인의 역사를 새로이 정립하기 위한 최초의 시도가 있었던 이후에 있어서 근대건축운동들 중에서 중요한 운동의 하나로 여겨진 데 스틸¹⁾은 실제로 입체파, 미래파, 초현실주의와 같은 동질성을 지닌 그룹이나 어떠한 주의(-ism)도 아니었으며, 또한 바우하우스(Bauhaus)와 같은 디자인 학교도 아니었다.

데 스틸은 모더니즘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추상 예술운동들의 변형이었으며, 점차 그것들의 특징이 되었다. 데 스틸의 예술가들이 지닌 뚜렷한 의도는 새로운 형태가 당시에는 관례적인 것으로 생각된 오랜 예술의 형태와 같은 표상적인 것, 서술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데 스틸은 구상의 세계, 또는 그 형태의 모방과는 연관을 지니고 있었지만, 자신들의 용어로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데 스틸의 이념은 보편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었으며, 초기부터 특정한 예술분야에 제한을 두지 않고 포괄적인 실현화를 지향했다. 비록 반 뒤스버그가 항상 데 스틸 운동을 동질성을 지닌 실체로서 나타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데 스틸과 연관을 맺은 예술가들의 대부분은 서로를 알지 못했으며, 주로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데 스틸에 참여한 예술가들이 공식적인 연대를 천명한 바가 없었기 때문에 데 스틸의 구성원들을 구분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었지만 일반적으로 데 스틸의 구성원들은 초기 6~7년 사이의 기간에 가장 밀접하게 제휴했던 9명의 예술가들과 건축가들의 활동에 집중되고 있다.

(2) 데 스틸의 이론적 배경

데 스틸의 이론적 배경은 여러 측면에서의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나 이 운동에 영향을 미친 요소들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당시의 전반적인 시대사조였던 시대정신(Zeitgeist)²⁾을 들 수 있다. 움베르토 보치오니(U. Boccioni)의 「미래파 조각 기술 선언(1912)」과 같은 미래파의 시대정신과 바실리 칸딘스키(W. Kandinsky)의 「예술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에 관하여

(1921)」가 데 스틸의 지도자 반 뒤스버그에게 영향을 미침으로서 더욱 시대정신에 고취되었음을 알 수 있다.³⁾

둘째, 데 스틸 운동이 태동했던 네덜란드의 국가적인 특성을 들 수 있는데, 네덜란드는 청교도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데 스틸의 원리로 채택한 수직과 수평을 통한 직각의 원리와 청교도적인 절제 사이에는 뚜렷한 관련성들이 나타나는데, 데 스틸 운동은 생활양식 전반에 걸쳐서 기하학적인 명료성을 추구하는 엄격한 네덜란드의 청교도 정신을 반영하고 있었다. 데 스틸의 예술가들은 그러한 사상적 기반에 자신들을 관련시킴으로서 인간이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인 조화의 존재를 믿고 있었다.⁴⁾ 따라서 데 스틸의 예술적 개념은 네덜란드의 이상주의 철학, 절제, 명확성, 논리, 청교도적인 구스타파의 합리적인 면모 등과 같은 굳건한 사상적 기초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셋째, 몬드리안과 반 뒤스버그는 공통적으로 자신들이 데 스틸의 사상을 형성하던 초기에 쾨메케르스(Schöenmakers)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네덜란드의 신학자이자 수학자인 쾨메케르스는 「새로운 세계의 이미지(Her nieuwe Wereldbeeld)」와 「조형예술의 원리(Beginselen Beeldende Wiskunde)」를 집필했는데 이러한 저서를 통해서 그는 원색, 수평과 수직의 교차로 인한 직각에 관한 데 스틸의 원리에 영향을 미쳤다.⁵⁾ 몬드리안은 신조형주의(Neo-Plasticism)라는 용어를 쾨메케르스로부터 도입하는 등 많은 영향을 받았다.

넷째, 라이트(F.L. Wright)와 베를라헤(H.P. Berlage)의 건축적 영향력이다. 라이트는 1910년대 중반에 네덜란드의 건축가들과 디자이너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으며, 로베르트 반 호프(R. van't Hoff), 얀 빌스(J. Wils)와 같은 건축가들은 라이트의 영향이 분명히 드러나는 작품들을 디자인했다. 데 스틸 건축에 영향을 미친 라이트와 함께 간과할 수 없는 또 다른 건축가는 네덜란드 건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베를라헤이다. 그는 당시에 가장 영향력을 행사했던 건축가로서 네덜란드의 새로운 이상을 지키면서 현대적인 건축양식을 창조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것은 장식의 억제, 절제, 치장의 제외, 견고성에 의해 표현되는 것으로, 이러한 이념은 이후 데 스틸의 중심적인 건축가 중의 한명인 J.J.P 오우드에 의해 지어진 많은 공공건물에서 자주 응용되어 나타났다.

다섯째, 기계미학(Machine Aesthetics)의 영향을 들 수 있다. 데 스틸의 예술가들은 자신들의 선언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미래파적인 변화와 이에 대한 흥분을 가지고 있었으며, 인간과 자연을 분리시키고 있는 기계가 생활의 정신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반 뒤스버그는 「모든 기계는 유기체의 정신화이다。」⁶⁾라고 말함으로써, 이러한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3)K. Frampton, G. A Document Special Issue 3, 1984, p.319

4)H. B. Chipp, Theories of Modern Art, L.A U.C.L.A Press, 1968, p.315

5)K. Frampton, op. cit, pp.250~251

1)데 스틸(De Stijl)은 「The Style'-'Style'이 아니라」를 의미하는 네덜란드어로서 하나의 한정적 양식을 의미한다. 또한 네덜란드어 Stijl이라는 말에는 기둥, 문설주, 지지대라는 다른 의미도 있다. 특히 가구제작이 목공에서 교차하는 연결부의 수직부재와 관련 있는 말이다. 반 뒤스버그와 초기의 데 스틸 협력자들에 의해 착안된 「Stijl」이라는 개념은 장식이나 치장의 응용에서가 아니라 사회 윤리적인 관점에서 기능과 구조의 본질적인 절제를 찾을 수 있다.

2)어느 시대의 주제적인 정신의 경향으로, 시대라는 것은 역사의 연속된 결과 전체를 일정한 의미가 내재된 공통의 경향에 근거하여, 시대의 전 문화를 자기의 손에 집중시키는 일관된 정신적인 경향을 시대정신(Zeitgeist)이라고 한다.

데 스틸 건축에 있어서 기계미학은 표준화라는 수단을 통해서 확산 되었다. 특히, J.J.P 오우드는 더욱 저렴하면서도 풍부한 구성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며, 또한 전쟁직후 네덜란드에서 부족하던 전문화된 노동력을 줄일 수 있는 수단으로 표준화를 신봉했다. 한편 벤햄(R. Banham)은 데 스틸의 예술가들이 20세기 최고의 작품으로 여겼던 기계미학을 계몽한 진정한 창설자라고 주장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데 스틸의 이론적 기반을 형성한 요소들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러한 배경을 통해서 형성된 데 스틸 이론들이 뛰어난 작품을 탄생시켰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2.2. 데 스틸의 건축적 이념

몬드리안에 의해 주창되었던 신조형주의(Neo-Plasticism)와 반 뒤스버그가 주장했던 요소주의(Elementalism), 그리고 추상적 환경의 창조라는 목표아래 데 스틸의 예술가들 사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기념비적인 예술(Monumental Art)의 건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1) 신조형주의(Neo-Plasticism)와 요소주의(Elementalism)

데 스틸 운동의 예술원리는 몬드리안에 의해 형성된 신조형주의와 반 뒤스버그에 의해 주창된 요소주의의 두 사조로 구분될 수 있다. 이 두가지의 사조들은 데 스틸의 전개과정에서 형태적인 변화를 주도하였으며, 회화와 건축을 포함한 모든 예술방면에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데 스틸은 건축, 회화, 인테리어 디자인, 조각, 영화, 문학 등 거의 전 분야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예술운동으로서 이 단체의 예술가들은 각 장르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형원리를 얻고자 노력하였으며, 그 근간이 바로 신조형주의였다. 몬드리안은 신조형주의를 자연의 다양한 변화를 명확한 관계들의 조형적 표현으로 환원시켜주는 수단으로 규정했으며⁷⁾, 「새로운 조형적 사상은 외관의 특색, 다시 말하면 자연의 형태와 색은 무시한다. 반면에 그것은 형태와 색의 추상개념, 즉 직선과 명확한 관계의 표현, 어떤 조형적인 미의 감정안에 있는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요소에 대한 표현이 있어야 한다.」⁸⁾라고 언급하였다. 결국 보편적인 목표 때문에 신조형주의는 추상화될 필요가 있었으며, 순수한 미를 겨냥한 예술성은 순수한 형태를 사용할 필요성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조건들을 성취하기 위한 신조형주의의 수단은 다음의 여섯가지 관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① 조형수단은 원색과 무채색을 이용한 평면, 또는 프리즘의

형태이어야 한다. 건축에 있어서 공간은 무채색에 해당하고, 소재부분은 색채에 해당한다.

② 조형수단은 상호간의 등가성(equivalence)이 필요하다. 크기가 다르거나 색채가 다르더라도 그것들은 서로 동일한 가치를 지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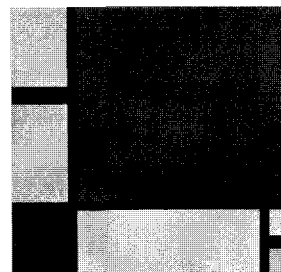
③ 조형수단에 있어서 이원적 대립은 구성에 있어서도 필요하다.

④ 일정불변의 균형은 대립적 관계에 의해 나타나고, 극한적 조형수단인 직선의 기본적 대립은 사각형 속에서 표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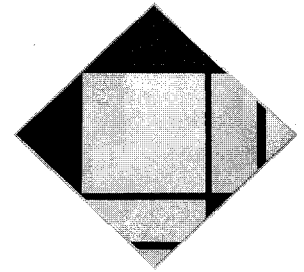
⑤ 대립하는 조형수단이 조화, 또는 중화되는 균형은 비례관계로부터 생겨난다. 이러한 비례관계는 활기찬 리듬을 가지게 된다.

⑥ 모든 대칭성은 배제되어야만 한다.⁹⁾

이상과 같은 선언들을 통하여 몬드리안은 자신의 순수기하학적 추상이론을 완성할 수 있었고, 이러한 이론들은 데 스틸의 기본적인 조형원리로서 데 스틸 운동의 확산과 함께 기하학적인 추상이론의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건축, 회화 등을 포함한 다양한 조형예술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실제로 신조형주의는 구체적인 체계를 지니지 못했기 때문에 건축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이후 반 뒤스버그가 주창한 요소주의에서 대각선을 도입함으로써 몬드리안이 데 스틸을 탈퇴하게 되면서 순수한 의미에서의 신조형주의는 희미해지고 말았다.



<그림 1> 몬드리안, 적·황·청의 구성, 1930



<그림 2> 몬드리안, 적·황·청의 리듬모폴, 19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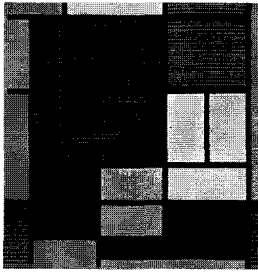
몬드리안이 시종일관 자신의 회화구성법(직각적 조형법)에 한해서 논하고 있었던 것에 반하여, 반 뒤스버그는 이것들의 관계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통합, 화합, 균형, 중용, 합의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하여 계속 의문을 가지고 실험한 결과 반직각 조형법(대각선)을 시도해 보게 되었다. 이러한 반 뒤스버그의 의미있는 전개는 「공동체 의식」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대각선 구성은 반 뒤스버그가 오벳테(Aubette)개조 계획에서만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의식해온 것을 오벳테 개조계획에서 이론적으로 형성시켰다고 할 수 있다.

6)R. Banham, Theory and Design in the First Machine Age (제1기계시대의 이론과 디자인), 윤재희·지연순 공역, 집문사, 1990, p.2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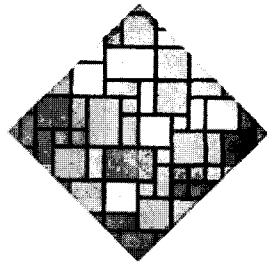
7)H. Read, A Concise History of Modern Painting (현대회화의 역사), 김윤수 역, 까치, 1990, p.198.

8)H. B. Chipp, OP. Cit, pp.321~323.

9)信定宏郎, 몬드리안과 데 스틸, 現代デザイン論理のエッセンス(현대디자인 이론의 사상가들), 박대순 역, 미진사, 1991, p.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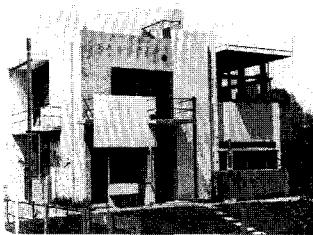
<그림 3> 몬드리안, 콤포지션, 1921



<그림 4> 몬드리안, 마렘모형, 1919

실제로 반 뒤스버그의 요소주의는 1920년대 중반까지는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었다. 먼저 그것은 역구성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전개되었다. 반 뒤스버그는 1921년부터 1922년까지 건축적 기초 연구의 전개에서 건축형식의 다양한 요소로서 색채, 선, 면, 볼륨, 공간, 시간을 논하고, '변형사교'란 이런 요소들의 구축적인 통합으로 이행되는 과정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다.¹⁰⁾ 또한 반 뒤스버그는 요소주의는 신조형주의의 직각적 조형법과 대립하는 대비적이고 변화하는 표현방법이며, 요소주의적 표현방법은 기본적으로 대각선과 색채의 불협화음에 근거를 두고 있다. 요소주의는 신조형주의의 평형적 관계와 대립하며, 색면의 시각적, 공간적인 긴장을 부여하는 대각선 구성으로 항상 자연적이면서 건축적 구조와 대립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각선 구성을 근본으로 한 요소주의는 인간정신의 복합적인 문제를 변형시키고 발전하는 조형표면으로 승화시키려는 반 뒤스버그의 의지가 엿보인다.

한편, 게리트 토마스 리트벨트(G.T. Rietveld)는 1924년 위트레흐트(Utrecht) 소재의 슈뢰더(Schröder)주택의 설계와 세부표현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이 주택은 많은 측면에서 그 준공 무렵에 발표된 반 뒤스버그의 「조형적 건축의 16가지 관점」을 구체화시킨 것이다. 그것은 요소주의적이며 경제적이고, 기능적



<그림 5> 슈뢰더주택, 1924

이며 역동적인 그의 규칙을 성취하고 있었다. 입면의 형식은 시각을 차단하는 수직 및 수평의 평탄한 벽면과, 개방적인 유리의 면으로 조합되어 있으며, 기하학적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창문도 모두 직각으로 구성되었다.¹¹⁾ 게리트

리트벨트는 이 주택의 비대칭적인 면, 상호 연관된 면, 독립된 면 등의 구성기법으로 뛰어난 데 스틸적 형태를 표현하고 있었다. 어떤 의미에서 요소주의는 신조형주의와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었으며, 결국 요소주의도 신조형주의 안에서 다른 수단을 사용한 하나의 분류라고 말할 수 있다.

실제로 반 뒤스버그는 몬드리안의 신조형주의 회화이론보다는 새로운 건축조형 이론의 생성에 관해서 관심이 많았고, 데 스틸이 미술운동으로 보다는 건축운동으로 정착되기를 원했다. 오벳테 개조계획에서 나타난 대각선구성의 개념은 회화의 2차원적인 개념을 건축의 삼차원적인 개념으로 응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데 스틸 건축의 형태 구성요소

건축에 있어서 형태를 구성하는 이차원적 요소는 평면과 직접적인 연관을 지니고 있다. 즉, 점(point), 선(line), 면(plane) 등은 평면상에 위치해서 하나의 형태를 구성하는데 반하여 삼차원적 요소는 내부공간(inner space)이나 볼륨(volume) 등과 같이 길이(length), 폭(width)에 깊이(depth)가 추가된 체적적인 의미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차원적인 요소는 면의 삼차원적인 변형으로 면 자체의 특성을 변화시킴으로서 성취될 수 있다. 즉 건축에 있어서 하나의 공간은 벽체와 바닥과 천장 등의 면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벽체나 바닥, 천장을 형성하는 면의 재료, 또는 채색을 통한 색채의 사용 등을 통해서 면의 성질을 변화시킴으로서 면의 이차원성을 초월하는 삼차원적 요소로서의 변형이 가능하다. 이처럼 변형된 삼차원적 요소의 구성에 시간의 개념이 건축적으로 적용되어 사차원적 공간으로 발전하게 되고 가변적인 내부공간을 구성함으로써 하나의 내부공간이 정적으로 정지된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속에서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유동적이면서 동적인 형태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요소들이 데 스틸 건축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되어 공간구성을 이루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1. 이차원적 요소의 형태구성

(1) 선(Line)

기하학적으로 정의할 때 선은 점과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로서, 점이 공간상에 이동한 궤적에 의해 표시된다. 점은 그 자체내에 단지 하나의 긴장만을 지니고 있을 뿐 방향은 전혀 지니고 있지 않은 반면에 선은 긴장에다 반드시 방향도 가지고 있다. 방향의 형태별로 선을 구분하면 수평선, 수직선, 대각선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세가지 이외의 다른 것들은 이 유형에서 벗어난 이탈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¹²⁾

데 스틸 운동은 몬드리안의 신조형주의를 통해서 직각으로 교차하는 수평 및 수직선에 대한 집착과 반 뒤스버그의 역구성

10)Ibid, p.44.

11)윤재희·지연순 저, 데 스틸운동과 건축, 집문사, 1994, pp.34~36.

12)W. Kandinsky, Punkt and Linie zu Fla''che(점, 선, 면), 차봉희 역, 열화당, 서울, 1992, p.48

개념을 기본으로 하는 요소주의에 의한 대각선의 도입으로 인해서 위의 세가지 직선의 유형을 사용하였다. 데 스틸의 건축에서는 대각선의 역할이 건물의 형태를 결정하는 것은 물론, 실내디자인에서도 아주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데 스틸의 예술가들은 수평, 수직, 대각선에 대한 정의를 명쾌히 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정의들은 그들의 건축작품에서 표출되고 있다.

(2) 면(Plane)

면은 선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공간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하나의 입체를 형성하는 경우에는 그 내부에 공간을 포함하게 된다. 따라서 면의 형태는 공간의 성질과 직접적인 관련을 지니고 있다. 데 스틸의 건축가들은 자유로운 평면들의 구성으로 인해 유동하는 공간의 성취를 목적으로 많은 실험적 작업들을 수행하였다. 즉 하나의 공간을 에워싸고 있는 면들이 독립되고 분리될 수 있다면 확장할 수도 있고 상승과 하강, 그리고 외부로부터 내부를 차단시켰던 한계를 초월할 수도 있다.¹³⁾ 면의 결합을 통한 공간형태의 변형은 데 스틸 건축이 성취하고자 노력한 주요 목표중의 하나로서 모든 면들은 하나의 요소로 간주되며, 전체의 형태는 해체되고 다시 이렇게 해체된 요소들을 변형적으로 결합시킴으로서 또 다른 형태를 구성할 수 있다.

(3) 색채 (Color)

데 스틸에 참여한 예술가들에게 있어서 색채의 응용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이에 대한 많은 실험적 노력들이 있었다. 이러한 노력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데 스틸의 형태들은 자신들이 확립한 조형원리에 의해 자연스럽게 발전할 수 있었으며, 그러한 조형원리의 분류로서 신조형주의를 들 수 있다.

몬드리안은 보편적인 색상의 조화를 통해 구현되는 유포아적 표현수단으로 적·청·황 등의 삼원색으로 제한하였다.

데 스틸은 채색된 추상적 환경의 창조를 목표로 했었기 때문에 색채에 대한 중요성은 아주 자연스럽게 강조되었으며, 회화, 실내 디자인, 스테인드 글라스와 같은 여러 가지 분야의 예술작업을 통해서 자신들의 개념을 실험하고 그에 따른 진화의 과정을 꾸준히 추구했다. 데 스틸 건축에 적용된 색은 면의 성질에 대한 보충적인 수단으로 제공 되었으며, 색채의 구성방식은 면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3.2. 삼차원적 요소의 형태 구성

(1) 내부공간(Inner Space)

데 스틸은 공간개념을 미학적 원리로서 분명하게 선언한 20세기의 예술운동으로 당시의 시대정신을 형태나 색채, 그리고 공간의 성장요인이라는 진보적인 변형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인간의 공간 경험은 인간을 포함하는 공간 구성요소들의 상호작용을 통한 결과로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공간을 구성하는 한정요소들은 그 구성방식에 따라서 정적 또는 동적인 성격을 부여 받게 된다. 따라서 건축가들은 이러한 추상적 공간을 형태로 구체화시키는 공간의 한정된 수단으로 벽, 바닥, 천정 등의 형태를 구성함으로써 공간을 정적, 또는 동적인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¹⁴⁾

하나의 건물을 한정하고 있는 벽체로 인해 형성되는 볼륨의 내용물을 내부공간이라 할 수 있고, 내부공간은 다른 삼차원적 요소인 볼륨과 함께 하나의 형태를 형성하는 요소이며, 양자는 불가분의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다. 내부공간은 면과 같은 이차원적 요소의 구성에 의해서 자체의 성질을 부여받게 되며, 그것은 기능의 접근성이나, 이동을 위한 통로에 의해 서로 연관되어 있는 많은 공간들과 관련이 있다. 반 되스버그는 데 스틸 건축이 지향해야 할 새로운 건축의 규범으로서 시간의 개념 도입을 주장하였다. 이는 이동가능한 칸막이와 같은 수단에 의해 구현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삼차원적 내부공간의 사차원적 확장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분할을 없앴으로서 내·외부공간의 연속성이라는 공간상의 특징이 완성되었다 할 수 있다.

(2) 볼륨(Volume)

내부공간은 이차원적인 요소에 의해 한계가 부여되는 무형의 실체이며, 이차원적인 요소로 이루어지는 종합적인 결과가 볼륨이다. 따라서 모든 건축의 내부 공간은 볼륨에 의해 가지화되며, 밀접한 관계를 지니게 되므로 볼륨을 단순히 면으로 구성되는 표피로만 인식해서는 안될 것이다. 형태를 나타내는 볼륨은 대칭성, 중심성, 축성, 각 면들 사이의 비례관계 등과 같이 건축의 기본적인 형태요소로 분류되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볼륨의 형태를 결정짓는 요소들은 개구부, 모서리의 처리, 색채, 질감 등을 들 수 있다.¹⁵⁾ 데 스틸 건축에 나타나는 볼륨의 형태구성 방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순한 형태의 공간을 에워싸는 하나의 볼륨들이 부가되어서 형태를 구성하는 유형,

둘째, 여러 개의 볼륨들이 복합적인 작용, 즉 상호관입을 통한 밀집에 의해서 형태를 구성하는 유형,

셋째, 여러 개의 볼륨들이 상호 관입과 같은 복합적인 작용으로 형성된 볼륨에 다양한 체적분해가 이루어진 형태를 구성하는 유형이다.

3.3. 사차원적 요소의 형태 구성

데 스틸 건축에 있어 사차원적인 공간 구성이라는 특징은 시간의 개념이 도입됨으로 해서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시간

13) Bruno Zevi, The Modern Language of Architecture (건축의 현대언어), 이해성 역, 세진사, 서울, 1992, p.37

14) 김영태, 현대건축에 있어서 탈 큐빅 공간형태의 역동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 박론, 1988, p.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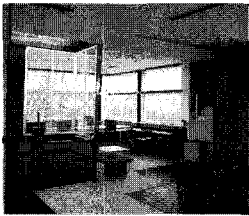
15) 김상길, 데 스틸 건축의 형태구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론, 1985, p.58

개념의 도입은 입체파의 회화와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으며, 입체파의 회화는 하나의 대상을 시간의 흐름속에서 관찰한 후, 이를 하나의 화면에 동시에 표현한 것이다. 데 스틸 건축에서 시간의 개념은 반 되스버그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시간개념의 도입으로 인한 형태구성 기법은 가변적인 내부공간을 구성하는 것이다. 즉 이러한 내부공간의 가변성은 내부공간에 슬라이딩 도어(sliding door)나 이동 칸막이(movable partition)와 같은 수단을 통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환에 의하여 성취되는 것으로 대표적인 예가 슈뢰더 주택이라 볼 수 있다. 이 주택의 내부공간은 시간의 경과속에서 변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디자인되었으며, 슬라이딩 도어나 칸막이 뿐만이 아니라 벽에 부착할 수 있는 침대와 테이블, 그리고 적극적인 색채를 사용해서 가변적 구조를 연출하고 있다.

4. 데 스틸 건축의 특성

4.1. 데 스틸 건축 및 인테리어 작품의 특성

데 스틸의 대표적 건축인 게리트 토마스 리트벨트(G.T. Rietveld)의 슈뢰더(Schröder)주택은 한가족이 살만한 작은 주택으로 실내장식이 되어 있는데, 공간을 신축적으로 배치하였고 시각적이면서도 형식적인 특색을 지니고 있다. 위층에는 비교적 작은 공간안에 침실, 거실, 작업실, 식당등을 두었고, 아래층에는 현관, 부엌, 스튜디오, 침실등을 배치하였다. 내부구성은 선으로 둘러싸인 듯한 블록벽과 천정, 그리고 돌출된 데크들의 평면이 복잡하게 서로 꿰뚫고 있으며 오픈된 부분들은 금속 사시(sash)로 되어 있고 유리가 끼워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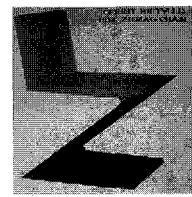


<그림 6> 슈뢰더주택 내부, 19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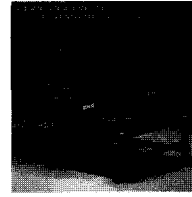
다. 위층의 메인 리빙룸은 슬라이딩 판넬로 설치되어 다양한 공간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부분의 면들은 흰색과 회색으로 되어 있으며 유일하게 원색과 검정색 만이 쓰였다. 실내가구는 게리트 리트벨트의 가장 잘 알려진 작품인 기하학적 형태 의자중 하나로 「지그재그 의자(ZigZag Chair)」인데, 4개의 평평한 목재 직사각형들이 Z자형태를 이루도록 배열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1918년에 만들어진 좀더 복잡한 「적·청 의자(Red and Blue chair)」로 검은색이 칠해지고 노란색의 끝단들이 있는 가는 각진 나무들로 된 골조가 평평한 좌석과 빨강과 파랑이 칠해진 등받이 면을 지지하고 있다.

이 의자들은 앉기에 좀 불편해 보일 수도 있으나 적당한 정도로 안락함을 제공하고 시각적인 면에서 추상적인 조각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 두 의자들은 모두 현재에도 생산, 사용중이다. 그 밖의 게리트 리트벨트의 가구와 조명 디자인들은 완전

히 추상적이고 조각적인 면에서 유사한 패턴의 개념을 따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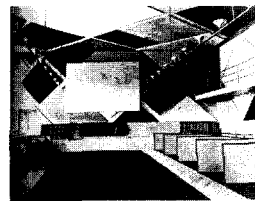


<그림 7> 지그재그 의자, 1934



<그림 8> 적·청의자, 1918

한편, 몬드리안은 흰 바탕 위에 직선으로 둘러싸여진 그리드로 된 검은 띠들을 잇고 어떤 부분들은 원색으로 채워진 추상화들로 유명하다. 그의 작품은 회화에 머물렀지만 몬드리안의 작품은 디자인과 건축에 강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반 되스버그는 많은 건축적인 프로젝트들을 개발하는데 추상적인 형태와 원색들을 건물이 될 수 있는 3차원적인 구성으로 전환시켰다. 그가 상당한 영향을 끼친 프로젝트들은 종이 위에서 작업되었지만 실행된 유일한 작품은 피동(Meudon)에 있는 자신의 작은 주택(1930년)과 1926년에서 1928년에 만들어진 스트라스부르크(Strasbourg)에 있는 오베틀레(L'Aubette)라고 알려진 복합적인 레스토랑 인테리어이다.



<그림 9> 반 되스버그 카페 오베틀레, 스트라스부르크, 독일, 1926-1928

이 레스토랑은 기하학적이며 추상적이게 대각선으로 배치된 3차원적인 형태들과 튜브 모양의 계단과 발코니 난간들, 그리고 유일한 색상으로 검정과 흰색과 원색들로 된 콘크리트, 강철, 알루미늄, 유리 등을(나무는 피했다) 사용한 벽화들은 모두 중요한 특징들이다. 특히 바와 무도회

장, 그리고 시네마가 있는 엔터테인먼트 센터에서 반 되스버그는 데 스틸의 추상적인 기하학 형태들을 사용해서 매우 모던한 실내를 만들어 냈다.

시네마 댄스홀에서는 필름들이 중앙에 있는 스크린으로 비추어지고 손님들은 부스안에 앉아 있거나 중앙의 댄스 홀에서 춤을 추게 되어 있다. 반 되스버그는 추상적인 디자인에 대해서 얀 아르프와 그의 아내인 소피 타와브 아르프와 함께 작업을 하였으며 이 복합 공간이 처음 문을 열었을 때에는 대중들의 반응이 탐탁치 않았었다.¹⁶⁾

4.2. 공간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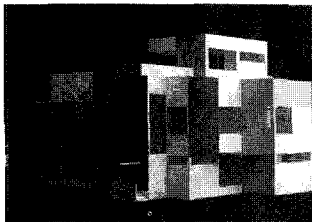
입체파에 의해 성립된 4차원적 공간개념의 본질적인 의미와 가능성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건축에 처음 적용한 이들은 반 되스버그와 게리트 리트벨트 등의 데 스틸 건축가들이다.

데 스틸 건축가들은 당시 유럽에서 출판된 라이트의 작품집

16) John Pile 저, A History of Interior Design(실내디자인사), 홍승기 역, 서우사, 서울, 2002, pp.270~271

을 통하여 그의 작품에 나타난 내외 공간의 상호관입, 그리고 공간의 유동성과 개방성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이를 입체과의 4차원적 공간 개념과 결합하여 그들 나름대로의 독특한 공간개념을 형성하였다. 또한 그들은 그와 같은 공간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전통적 건축의 단순하고 밀폐된 매스(mass)를 평탄한 면들로 자유롭게 분해한 다음 이들을 정적인 투시화법적 시각을 피해 재조립하는 4차원적 분해의 구문론을 전개함으로써 새로운 건축구성원리를 확립시켰다.

이러한 공간개념은 게리트 리트벨트의 슈뢰더 주택이나 반되스버그와 반 에스테렌의 「특수 주택 계획안(1923)」에서 나타난 것처럼 밀폐된 매스를 평탄한 면들로 단편화 시킨 후, 이들을 수평과 수직, 그리고 직각의 엄격한 기하학적 질서에 따라 재구성하였다. 그러한 결과 공간속에서 직각으로 상호 교차하며, 복잡한 관계에 있는 면들에 의해 일부는 폐쇄되고, 일부는 개방된 공간들이 동시에 존재함으로써 유동적이고 개방적인 공간이 형성되고,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이 상호관입하는 4차원적인 공간구성이 이루어졌다. 또



<그림 10> 특수주택 계획안, 1923

한, 「특수주택 계획안」에서 공간에 구형의 다양한 요소를 중복 분할함으로써 공간에서의 대비, 부조화, 보완 등을 추구하고 있으며, 각 실들은 계단실 주변에 360도의 연속 레벨 위에 자유롭게 배열되어 있다. 건물의 볼륨은 미리 고정된 것이 아니고 전체 공간에 대한 개략적인 생각에서부터 출발하여 외부로 향해 건축되고 있으며, 결국 외관은 어느 특별한 하나의 관점에서 지배되는 것이 아닌 여러 가지 다양한 투시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¹⁷⁾

4.3. 면의 조합체계 분석

데 스틸 건축에서 표현되었던 면의 조합체계를 아래와 같이 크게 4개 형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제1형식은 형태를 구성하는 이차원적인 요소인 단순한 선과 색채, 면의 위치가 변동됨에 의해서 형태를 구성하는 유형

제2형식은 공간적인 면에서는 가변성을 창출하고, 형태적인 면에서는 고정되지 않고 역동적인 형태를 구성하는 유형

제3형식은 건축에 도입된 시간개념으로 가변적인 내부공간 구성을 통해서, 또 볼륨의 해체를 통한 유동적 내부공간을 구성하는 유형

제4형식은 형태구성 위주의 건축에서 공간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고려한 표준화된 형태의 건축을 추구하는 유형으로

이러한 원리는 연결시키는 과정으로 부가(additive)와 중복

(overlapping), 감소시키는 과정으로 분할(division)과 삭제(subtractive)이다.

(1) 제1형식

몬드리안의 회화에서 인용된 것으로 파사드만으로 전체 매스를 표현하며, 이때의 면은 전체 매스를 표현한다. 면의 구성은 전체를 하나의 화면으로 취급하여 개구부와 벽의 구성이 이루어진다. 분할된 개개의 면은 비물질적인 질감의 성질을 갖고 자체로서 독립성이 없으며, 개구부는 자체로서 의미보다는 전체화면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로서 의미가 강하다. 한 개의 화면으로서 정적인 처리는 르 꼬르뷔제의 사보이주택의 면 처리와도 유사하다. 벽체나 바닥, 천장을 형성하는 면의 재료, 또는 채색을 통한 색채의 사용 등을 통해서 면의 성질을 변화시킴으로서 면의 이차원성을 초월하는 삼차원적 요소로서의 변형이 가능하다.

(2) 제2형식

구형의 다양한 요소가 서로 중복되고, 각각의 요소는 분할되어 보다 복잡한 구형이 된다. 전체 구형에서 기능의 요구에 따라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과거의 양식에 비해서 기본형이 없고, 각 공간은 개방적으로 연결된다. 벽은 단순히 칸막이의 용도를 갖는 것으로, 지지체로서 기능은 없어지고 지지점만을 제공한다. 경우에 따라서 벽의 기능은 커튼월의 기능이고, 형태는 무정형, 비대칭의 형태를 갖는다. 대칭은 철저히 배제되고 정면성, 표준화 등도 모두 배제한다. 반되스버그와 반 에스테렌의 「특수주택 계획안」이 대표적인 예로서, 축을 중심으로 하여 균형을 이루고, 시간의 개념을 도입하여 형태자체를 변형하며, 정면성을 거부하고 모든 측면을 강조하는 형식이다. 데 스틸의 가장 큰 의미는 건축공간을 기능에 의거하여 중심에서 밖으로 방사하며, 각 단위요소는 분할, 삭제되어 비정형의 구형이 되고, 각 요소는 중합의 수법으로 덧붙여진다.

(3) 제3형식

제2형식의 형태가 방사하는 공간단위로서 형태를 이루는 매스인데 반하여, 이 형식은 매스를 치환하는 형태이다. 슈뢰더 주택이 그 예로서 전체의 한 매스에서 국부적으로 분할하고 면을 덧붙임으로 해서 반되스버그의 조형적 연출을 시도하였다.

이 주택 2층 평면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칸막이 벽을 모두 가변식으로 함으로써 전체가 하나의 실이 되며, 입면은 다양한 면으로서 원심적 방사를 표현한다. 특히, 기능과 전혀 관계없는 면을 전체의 균형을 위하여 덧붙이기도 함으로서 전체의 구성에서 통일된 형태를 유지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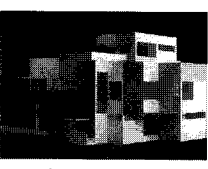


(4) 제4형식

제4형식은 데 스틸 자체의 수정으로서 국제주의에 포함되어 버린 형태이다. 즉, 1형식에서는 정형의 면이, 2형식에서는 원심적 방사의 형태, 3형식에서는 매스를 면으로 대체하여 분할하는 형태이고, 4형식에서는 단순한 입방체의 형태로 되돌아온

17)윤재희·지연순, 데 스틸운동과 건축, 세진사, 서울, 1994, p.101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형태적 변환은 데 스틸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면의 조합체계는 단순한 입방체의 중첩으로 단순화와 표준화를 지향하고 있다.

<표 1> 형식분류에 따른 건축공간 인식개념

구분	건축작품	인식개념	작가
제1 형식	 카페 오벳테(1928)	· 몬드리안 회화이론의 변화 (2차원적개념→3차원적개념) · 직각구성→대각구성 · 회화→건축위주의 이론전개	반 되스버그/ 한스 아르프
	 카페 드 유니(1924)	· 신조형주의와 요소주의붕괴→ 단조로운 입방체 · 국제주의 양식으로 융화 · 건축만이 공간에 완전한 가치를 부여	J.J.P 오우드
제2 형식	 특수주택계획안(1923)	· 과거의 고정적 양식 탈피→ 박스의 해체 · 대칭 및 파사드의 거부 · 건축공간 개념은 공간과 요소와의 이원적 관계 · 가변적 공간구조	반 되스버그/ 반 에스테렌
제3 형식	 슈뢰더주택 2층내부(1924)	· 공간과 형태의 분화, 조화 · 건축의 4요소를 공간구성 요소로 다각적, 종합적 파악 · 건축은 물체조형에 의한 2중의 공간조형예술 · 내, 외부 공간의 이중적 관계로부터의 분리, 개방→유기적, 상호관입의 관계	게리트 리트벨트
제4 형식	 키프호크건물(1929)	· 표준화된 형태의 건축추구 · 콘크리트와 유리, 철등의 보편적 건축재료를 사용한 대중 건축의 수용→단순화, 표준화 · 데 스틸의 붕괴→국제주의양식으로 흡수	J.J.P 오우드/ 반 호프

5. 결론

근대디자인의 맥락에서 살펴본 데 스틸 건축의 디자인 특성은 당시의 시대정신에 부응한 새로운 조형예술 창조의 이념을 바탕으로 보편적이고 기하학적인 형태의 추구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건축의 형태구성과 시간성을 도입한 4차원적 공간 개념은 오늘날 합리주의의 새로운 틀을 정립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본 연구는 모더니즘 건축의 한 부류였던 데 스틸을 선정하여 데 스틸 건축의 형태구성 및 공간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데 스틸 건축의 이론적 기반은 회화상의 구성체계인 몬드리안의 신조형주의(Neo-Plasticism)와 이에 대한 반발로서 강력한 대각선을 도입한 건축이론 체계가인 반 되스버그의 요소주의(Elementalism)에 의해 제공되었으며, 이러한 이론은 데 스틸

틸 건축의 형태구성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지닌다.

2) 특징적 데 스틸 건축의 형태 요소로는 강력한 대각선과 수직, 수평선의 도입, 내부공간의 중첩과 분해, 불륨의 상호관입, 다량의 개구부, 투명재료를 사용한 면, 색체에 의한 시각적 강조, 벽면에 원색의 응용을 통한 면의 물리적 특성의 제거, 면의 경계를 초월하는 실내 벽면에 대한 색체의 사용등으로, 데 스틸의 구성적 특성이 다양하며 강하게 표현되고 있다.

3) 데 스틸 건축의 형태는 슈뢰더 주택에서 분석되어지듯이 평면의 구성과 실내공간구성, 외부적 형태요소가 일정한 비례 체계에 의해 구성되어짐으로서 형태의 체계성을 확립할 수 있었고, 이것을 기본으로 한 자유스러운 면의 구축, 면의 폐쇄와 개방 등은 전체적인 조화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반 되스버그에 의해 도입된 공간의 시간개념은 가변적인 내부공간을 구성하는 형태구성 기법으로 전체적으로 유동적이면서도 동적인 형태를 구성한다. 이러한 사차원적 공간구성이라는 데 스틸의 공간구성 기법은 모더니즘을 비롯한 현대건축과 실내공간에 이용되어지고 있으며 진보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 졌다. 그러나 데 스틸은 멤버들의 숫자도 적었고 그 활동기간도 짧았으며 이루어 놓은 일들도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더니즘의 발전에 있어서 그 영향력은 독일과 프랑스의 선구자들이 끼친 영향력보다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데 스틸 건축의 진정한 의의는 근대건축에 한 획을 긋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보편적이고 새로운 이념확립에 밑거름이 되었다는 점이며, 오늘날 건축의 다양성은 이러한 근대양식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참고문헌

1. 김상길, 데 스틸 건축의 형태구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론, 1985
2. 김양태, 현대건축에 있어서 탈 큐빅 공간형태의 역동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 박론, 1988
3. 신안준, 근대건축에 있어서 데 스틸운동의 의의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론, 1984
4. 최재석, 네덜란드의 근대건축에 관한 연구(데 스틸 건축전에 관하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8권 4호, 1992
5. 최재석, 네덜란드의 근대건축에 관한 연구(오벳트 개조계획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8권 11호, 1992
6. 윤재희·지연순, 데 스틸운동과 건축, 세진사, 서울, 1994
7. 정인국, 근대건축론, 문운당, 서울, 1997
8. Bruno Zevi, The Modern Language of Architecture (건축의 현대언어), 이해성 역, 세진사, 서울, 1992
9. H. B. Chipp, Theories of Modern Art, L.A U.C.L.A Press, 1968
10. Herbert Read, A Concise History of Modern Painting (현대회화의 역사), 김운수 역, 도서출판 까치, 서울, 1990
11. Reyner Banham, Theory and Design in the First Machine Age (제1기계시대의 이론디자인), 윤재희·지연순 공역, 김문사, 서울, 1990
12. W. Kandinsky, Punkt and Linie zu Fla'che(점, 선, 면), 차봉희 역, 열화당, 서울, 1992
13. 信定宏郎, 몬드리안과 데 스틸, 現代デザイン論理のエッセンス(현대디자인 이론의 사상가들), 박대순 역, 미진사, 서울, 1991
14. John Pile, A History of Interior Design(실내디자인사), 홍승기 역, 서우사, 서울, 2002

<접수 : 2005. 10. 31>